

윤석열 정권 노조 전임자 때리기

사용자는 미소 짓고 노동자들 피해 늘고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

‘노동 외면’ 국회

회계공시 강제로도 부족한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압박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옥죄니다.

대놓고 자동차, 조선소

금속노조를 찍어 누릅니다.

정부·자본 입맛대로 노조 전임자를 없애면

단체교섭, 안전 관리, 고충 처리는

누가 합니까?

결국 노사자치 훼손하는

타임오프제도가 문제!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폐지 외치러

6월 12일 국회로 갑니다.

노동자들만 손해 보는

노조 전임자 숫자 후려치기에

당당히 맞섭시다.

어린애까지!

노조 전임자 없애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1만 간부 상경투쟁

타임오프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할 권리 쟁취!

2024.6.12.(수) 14시 여의도 국회

윤석열의 타임오프 압박, 전임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노동자, 조합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 업무 상당 부분을 대신합니다.

대다수 산업안전 활동과 일상적인 노동자 고충 처리를
노조 전임자가 도맡습니다. 이는 원래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몫
하지만 사용자 회피, 부실 처리로 노조가 직접 해결하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을 유지하고 헌법상 노동삼권,
즉 단결·교섭·파업의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안정적인 노조 운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단체협약 체결·이행,
노조 대의원대회·총회 운영과 조합원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금속노조 사업장 전임자는 제조업 현장의 교대제 근무로 인해
같은 업무를 2~3회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전임자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기획·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타임오프 압박, 결국 노동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봅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전국 곳곳의 노동조합 사무실이 텅 빌 것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적폐도, 개혁의 대상도 아닙니다.
노동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는 정부와 사용자를 대신하여 노동자를 살리고
건강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조 전임자를 줄이거나
없애라고? 그 일을 윤석열 정권 너희가 대신 할 것도 아니면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 대신 노동자 고충 처리에 신경이나 쓸까요?

노조 전임자!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노사자치 영역

1996년 김영삼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생겨나
2010년 이명박이 더 편파적인 상태로 시행하고
2024년 윤석열이 더욱 악용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는
헌법상 보호해야 할 노조 전임자제도를 오히려 망가뜨렸습니다.
노조 무력화를 위한 행정 권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노사자치 원칙은 훼손당했고, 노동자들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노조 탄압용' '사용자 소원 수리' 타임오프,
그 폐지에 금속노동자 바짝 힘을 모읍시다.

6.12 결의대회 홍보 영상



반노동 정권의 낡은 유물 **현행 타임오프제도는 폐지가 답!**
전임자 문제 각자도생은 불가능 **같이 투쟁하고 같이 해결합시다!**